

아시아의 노동이주 실상

노동이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에게 거대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추세가 되었다.

노동이주는 아시아의 경제 성장 및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노동시장에서의 기술 불균형을 완화하고 노동자 수출입국에게 문화 및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노동이주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적으로 미화 4백억 달러 이상을 송금하고 있어 이주자 수출국의 주된 외화 소득원이 되어 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총 노동 이주인구는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연간 6퍼센트의 비율로 상승해 왔다. 이는 노동이주자 수출국의 평균 이주성장률이 노동력 성장률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는 뜻이다.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기 보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다른 경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아시아경제의 통합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추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듯 빠른 이주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아시아 노동 이주가 대체로 국영 리크루트 기관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상업적인 형태로 민간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주규모의 빠른 확대와 이주의 상대적인 효율성의 이유이면서 사기와 학대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는 이유이다.

밀입국과 강제 노동, (직업제공사기, 막대한 일자리 소개료와 같은) 리크루트먼트상의 악행, 부채상환을 전제로 한 노역, 성적, 육체적 희롱, 위험한 직종 종사, 값싼 임금 혹은 무임금 노동, 차별을 포함한 노동 이주와 연관된 위험이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아시아 전 노동자의 약 47% (2001년 기준)를 차지하고 여성 및 이주민으로서 이중적인 차별을 겪는다.

아시아 노동이주자의 대다수는 지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3D”직종에 종사하면서 고층 사다리의 최하에서 일한다. 일단 노동이주자가 되면 계속 노동이주자 직종에 종사하게 되기 마련이다. 노동이주자 직종에는 상업적 농업, 건설, 노동집약적 제조업, 청소, 요식 조달업 및 가정부일이 포함된다. 아시아는 또한 전문적이고 기술력 있는 노동자의 최대 공급지역이 되었다. 필리핀 간호사 및 교사들은 서아시아 및 산업국가로, 방글라데시 의사는 말레이시아로, 인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미국으로 이주함으로써 출신국가에서 “두뇌 이탈”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정책 수립자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비밀스러운 이주, 밀입국, 그 결과로 생기는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이주자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에서 노동자 넷 중 한 명 꼴로 공식적 지위가 없다. 그러한 이주자들은 특히 노동 착취 및 학대에 취약하다.

비공식 이주에 대한 대응책 대부분은 (이주통제, 체류기간제한 및 국외추방, 문서에 기입되지 않은 노동자의 고용주에 대한 제재조치와 같은) 여러 예방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국가들은 이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문제에는 국가안보, 이웃국가 관계 및 인권을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으므로 이 문제가 보다 광범위한 면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주통제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모든 관계자들이 이주로부터의 잠재적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고용정책수립, 노동시장 개혁, 기술력을 가진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규 및 법적 채널의 수립, 강력한 노동기구, 노사기구의 관여 및 이주자 수출입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이주자 수출입국의 노조는 학대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노동이주자 문제를 공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노동이주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며 훈련 및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측 기구들은 행동강령을 강화할 수 있다. 노사는 해당 국가 내 고용에서 노동이주자의 처우향상 및 차별규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의 인구학적 경향과 고르지 못한 개발 양상을 고려하면 노동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노동이주는 기술발달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점점 더 세계화하는 경제환경에서 개인 및 경제에 경쟁적 우위를 줄 수도 있다.

주요통계

아시아는 자체 이주노동자를 점점 더 많이 흡수하고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2백6십만에서 2백9십만 (등록 및 문서상 기록된) 아시아이주 노동자의 40%는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주해 갔다. 아시아 주요 노동자 수입국(매년 1백4십만 이주노동자들이 가는 국가)에는 일본,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는 아시아 이주노동자의 90%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2000년 아시아 노동이주자는 페르시아만 협력회의(GCC) 회원국가 노동인력의 40에서 70%를 차지했다. 동아시아 주요 노동이주자 수입국에서 노동이주자들은 총 노동인력의 4.2%를 조금 넘었다. 이주민이 노동인력의 28%에 이르는 싱가포르와 12%에 이르는 말레이시아는 예외이다.

노동력의 약 1%가 매년 이주하는 필리핀은 최대노동력 수출국이지만 몽고와 이란과 같은 새로운 국가들이 노동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 285,000 명의 노동자가 매년 이주해 나가고 있고 현재 총 3백만 명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자들이 2003년에 아시아 출신국가에 보낸 송금액은 미화 4백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 2004년 인도는 230억, 필리핀은 8십억 달러를 본국 노동이주자로부터 받았다. 이 송금액은 GNP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자 송금액은 필리핀에서 GDP의 8.6%, 파키스탄에서 7%, 스리랑카에서 6.5%, 방글라데시에서 6%, 인도네시아에서 4.7%, 인도에서 3.1%, 태국에서 1.8%를 차지했다 (2002-2003년 수치).

노동이주자가 여성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는 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여성은 해외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의 60-80%에 이른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 이주는 여전히 가정부일 및 유흥산업과 같은 제한된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ILO의 역할

노동자 이주자는 노동이주자 수출입국의 번영에 상당히 기여하지만 그들이 세계 경제에서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1930년대 이래 ILO가 노동이주 관리 및 노동이주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수립을 모색해온 이유이다.

2004년 6월에 개최된 제 92차 국제노동회의(ILC)는 “세계 경제에서 노동이주자를 위한 공정한 대우에 관한 결의 및 결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노동세계에서의 ILO의 임무와 역량, 그리고 독특한 삼자구조는 ILO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갖게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그 중심에 있다. ILO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노동이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증진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ILC는 ILO와 그 구성원들이 노동이주자들에 대한 행동계획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 행동계획의 중심에는 노동이주 정책에 대한 개발 및 개선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정부 및 노사기구에게 제시하는 노동이주 정책에 관한 원칙, 지침 및 최선의 관행의 포괄적 모음이라 할 수 있는 “이주노동에 대한 ILO 다자간 기틀”이 있다.

이 기틀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이주관리, 이주권리, 개발연계 및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효과적인 이주정책에서 사회적 파트너와 사회담화의 역할을 중시하고 여성 노동이주자가 직면한 특별한 문제들을 다룬다.

제 14차 아시아지역회의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구속력은 없지만 권리에 기반한 이 기틀의 요건을 노동이주자의 수출입국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모든 노동이주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정 삼자 수준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